

RISTecBiz

인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차별화된 생산능력을
통해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리스텍비즈는 SIMPAC그룹의 일원으로 계열사간 협력과 소통으로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SIMPAC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더 큰 도약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리스텍비즈의 도전과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본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6길 46 TEL 061-792-8812
광양공장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TEL 061-797-2011~2

 리스텍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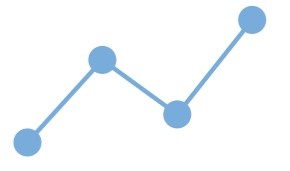
SIMPAC STORY 2021 VOL. 51

SIMPAC STORY

2021 | VOL. 51

Performance × Change

끊임없는 변화를 주도하며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다



 SIMPAC

2021 | VOL. 51

SIMPAC STORY

Performance × Change

끊임없는
변화를 주도하며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다

FOCUS ON



04

SUCCESS STORY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페로실리콘BU의
변화를 통한 성장 스토리와
경쟁력을 분석

INSIDE SIMPAC



20

현장속으로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의
현장을 찾아 변화와 성장의
스토리를 듣다

OUR STORY



34

슬기로운 직장생활

SIMPAC인들을 위한
업무 효율화와 긍정적인
조직생활을 위한 큐레이션

38

심팩 Talk Talk

변화와 혁신에 대한
조직문화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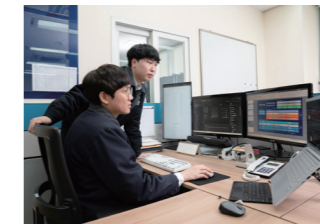
44

SIMPAC STARGRAM

'변화'를 주제로
SIMPAC인들의
일상을 공유

46

우리들의 이야기



24

심팩 인사이드

MS365 도입을 통한
업무 혁신에 대해
들어보다



28

공감토크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영업팀의 노하우와
애환을 공유



10

제품탐구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핵심 제품과 성장 동력을
심층 소개

12

10문 10답

SIMPAC의 '혁신을 통한
최고의 성과'를 주제로 진행된
현장감 있는 인터뷰

14

스페셜인터뷰

SIMPAC 메탈BU
김중호 부사장 인터뷰

18

SIMPAC News

CONTENTS



통권 51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1년 4월 23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02-3780-4923 dylee@simpac.com

㈜SIMPAC 프레스BU
 남윤기 매니저 032-510-0024 yknam@simpac.com
 김효리 매니저 032-510-0040 hyrkim@simpac.com

㈜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m
 고수영 대리 041-360-0122 syko@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이보라 사원 032-590-8817 brlee@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고현정 사원 054-271-8932 hjko@simpac.com

㈜리스텍비즈
 김영철 차장 061-797-2012 yckim@simpac.com

FOCUS ON



SUCCESS STORY × SIMPAC INDUSTRY



미래 지향적 변화로 최고의 성과에 다가서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와 시장은 기업 성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를 꿰뚫는 선견지명과 이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도전적 변화다. SIMPAC인더스트리의 산업기계BU와 페로실리콘BU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두 사업부가 최고의 성과에 다가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좌로부터)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생산팀 정설희 차장, 영업팀 양용진 팀장



(위에서 아래로)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설비반 김형준 차장, 생산팀 김건우 과장 설비반 이경원 사원, 생산팀 윤철욱 팀장

변화와 도전의 한 해를 보내다

작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변화가 요구되던 시기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기조가 가속화된 데다가, 불확실성의 증가로 시장 상황을 더욱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2019년 11월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인수, 페로실리콘BU를 새 식구로 맞은 SIMPAC인더스트리도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페로실리콘 생산 체계를 안정화하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맞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끝에 좋은 성과를 연이어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산업기계BU도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고객사들이 위기 대응을 위해 계획했던 설비투자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자, 산업기계BU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 하지만 산업기계BU는 이에 절망하지 않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덕분에 산업기계BU는 잘하는 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혁신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렇듯 SIMPAC인더스트리에 속한 산업기계BU와 페로실리콘BU는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어려운 와중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는 2020년을 보냈다.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한층 자세히 살펴보자.

1936

• 봉신주작소 설립

1978

• 공작기계 소재전문 생산업체 지정

1986

• 공작기계(Radial Drill M/C)
• 기술제휴(일본:OOYA)

1936 | 국산화의 선봉장 |



산업기계BU

뜨거운 혁신 의지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다

1936년 봉신주작소로부터 출발한 산업기계BU는 고무 및 PVC 제조 산업기계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외국산 산업기계가 독점하고 있던 믹서(Mixer)·믹싱밀(Mixing mill) 등을 1980년대부터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굴지의 타이어 기업들과 안정적으로 동반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업력은 2000년대 들어 독으로 작용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등한시했고, 2010년대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졌다.

이러한 위기에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SIMPAC그룹이다. 80여 년간 쉼 없이 쌓은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를 눈여겨 본 경영진이 산업기계BU를 SIMPAC 계열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산업기계BU는 제2의 도약을 맞았다. 시장 악화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타이어사만 바라보지 않고, PVC 분야로 눈을 돌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수년에 걸친 적극적 영업으로 또 하나의 활로를 개척했고, 그 결과 산업기계BU는 현재 국내 PVC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확보했다. PVC 시장 개척과 함께 타이어사와의 투자 논의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사 공장 증설 시 설비 국산화를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원가 절감 노력을 기반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낸 산업기계BU는 영업·설계·생산 등 전 부서에 걸친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으로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사업부'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전 구성원들의 혁신 의지와 노력이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산업기계BU는 분야의 특성상 주문 생산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고객사와의 굳건한 협업 체계 구축과 긴밀한 호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기계BU는 이러한 점에 집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이뤘으며, 사업부 특유의 최상급 기술력과 제품 완성도를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환골탈태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SIMPAC인더스트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실천함으로써, 산업기계BU는 세계적인 업계의 강자로 키워 내려 한다. 최고의 성과를 향한 SIMPAC인더스트리의 전진은 지금도,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이다.



산업기계BU 성공 포인트: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기술력

산업기계BU의 기술력은 여러 측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한다. 먼저 산업기계BU는 자체 가공 능력을 갖췄다. 설계한 부품을 직접 가공하다 보니 제작상 오류가 없다시피 하고, 가공의 정밀성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더불어 산업기계의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도 산업기계BU에서 자체 설계·생산한다. 이 같은 자체 기술력 보유는 제품의 완성도 향상과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낳았고, 이는 산업기계BU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영업팀 양용진 팀장과 생산팀 정설희 차장은 “고객사의 설비 국산화 요청이 유독 우리에게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어떤 회사든 설비를 교체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인데요. 이때 원가 절감, A/S 대응력 등을 이유로 설비 국산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만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기술 혁신에도 적극적이기에, 산업기계BU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계BU 영업팀 양용진 팀장

올해는 산업기계BU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타이어사의 설비 국산화 요청이 계속되고 있고 PVC 산업기계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 장악력을 더욱 탄탄하게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산업기계BU 생산팀 정설희 차장

코로나19로 인한 작년의 실적 악화로 뼈를 깎는 조직 개편을 했지만, 그만큼 사업부의 응집력과 혁신성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생산팀의 선임 사원으로서, 앞으로 생산·품질·납기를 사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1996: 영국 로이드사 ISO 9002 인증
- 1997: 기업부설 환경기술 연구소 발족
- 2002: 부품·소재 전문기업 선정(산업자원부)
- 2014: SIMPAC그룹 계열사로 편입을 통한 제2의 도약
- 2015: 동화산기 인수, 타이어 가류기 산업 진출
- 2017: Auto Blender 등 고무 생산 Line 자동화 연구개발/상용화, 한국표준협회 ISO 9001: 2015 인증
- 2018: SIMPAC주물과 법인 분리



2014 | 제 2의 도약을 추진 |



페로실리콘BU

미래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페로실리콘BU는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운영한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세계적인 철강사 포스코가 2013년 준공했으며, 2019년 11월 SIMPAC그룹이 인수하기 전까지 포스코엔텍에서 운영해 왔다.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변압기와 모터류의 철심 재료로 사용되는 전기강판의 주요 부원료 중 하나인데,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이를 연간 34,000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인수 이전까지 이어져 온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다. 공장의 전기로 2기는 생산팀에 의해 4조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는데, 전임 회사가 운영하던 시절에는 한 조에 9명이 투입됐다. 반면 현재 생산팀 한 조의 인원은 5명이지만, 9명이 하던 일을 무리 없이 해내고 있으며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먼저 전기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전극의 관리 기준을 한층 정밀하게 조정했다. 덕분에 제품 생산 시 발생하던 1톤당 손실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기로의 온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응집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전기로의 전력 투입량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는 제품의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을 더욱 높이는 성과를 불러왔다.

순도와 온도를 끌어올린 고순도 페로실리콘 용탕에 함량이 다소 미달된 페로실리콘 제품을 녹임으로써, 제품의 생산 기준을 맞추면서도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리멜팅(Remelting)'의 적용도 페로실리콘BU가 거둔 값진 결실이다. 아울러 전기차용 모터의 철심 재료로 쓰이는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 개발도 목전에 둠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의 미래적 요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페로실리콘BU 임직원들은 전임 회사가 운영하던 때에 비해 모든 지표를 성장시킴으로써 사업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있다.

페로실리콘BU 성공 포인트: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갈망

일반적으로 공장을 인수받으면 조업 정상화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페로실리콘BU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하루 빨리 마련하겠다는 열정으로 한 달 반 만에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조업 정상화에 성공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장 생산성을 두루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차근차근 마련했다. 신제품인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개발하여 시험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일찍이 마련했다.



생산팀 윤철욱 팀장과 김건우 과장, 설비반 김형준 차장과 이경원 사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모두의 갈망이 오늘날의 페로실리콘BU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장 인수인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장과 구성원은 운명 공동체’라는 확신과 모두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면면히 이어 나가서 오래도록 꾸준히 성장하는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페로실리콘BU는 미래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전기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중반기부터 물량을 납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간다는 각오다.



페로실리콘BU 생산팀 윤철욱 팀장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인수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여럿 만들어 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좋은 결실을 맺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높여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페로실리콘BU 생산팀 김건우 과장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시험 생산 성공으로 우리 사업부의 미래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고 자부하는데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두세 발 더 앞서 나가는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페로실리콘BU 설비반 김형준 차장

우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설비의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책을 맡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생산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페로실리콘BU 설비반 이경원 사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시간으로 미뤄볼 때 페로실리콘BU가 커다란 경쟁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걸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원인 만큼,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 | 새로운 시작 |

2013

• 포스코 고순도 FeSi 공장 준공



2019 | 지속가능한 성장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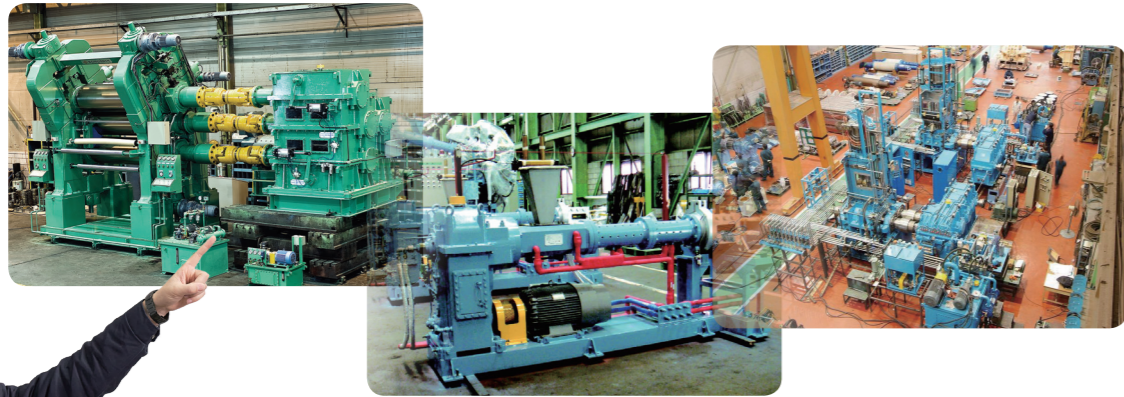
• 고순도 FeSi 공장 인수 계약체결
• FeSi 사업 추진준비단 발족(인수절차 진행)
• SIMPAC그룹 편입(SIMPAC인더스트리 고순도 FeSi Bu)

Industrial Machinery Bu

국내 최고의 산업기계 기업, 산업기계BU

산업기계BU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기계용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시너지를 도모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부품 공급의 내부화, 자체 대형 NC장비를 통한 가공, 턴키 방식의 제품 수주, 축적한 제조 노하우와 인력 베이스 등의 완벽한 생산 인프라를 통해 고객사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Industrial Machinery



- **Mixing Mill** : Standard Mixing Mill
- **Calenders & Train Line** : Production for Shoe Out Sole Sheet
- **Intensive Mixer** : Standard
- **Dispersion Kneader** : Standard
- **Sheet Preforming Machine** : Sheet Preforming Machine
- **Extruder** : Single Extruder / Duplex Extruder / Triplex Extruder / Quadraplex Extruder
- **Laboratory Machine** : Kneader / Test Mill / Mixer

산업기계BU 영업팀 양용진 팀장

산업기계BU 생산팀 정설희 차장

Ferrosilicon Bu

국내 유일의 고순도 FeSi 제조 공장, 페로실리콘BU

페로실리콘BU는 합금철 제조 60년 노하우를 가진 국내 유일의 고순도 FeSi 제조 공장이다. 페로실리콘은 FeMn, FeNi 등과 더불어 철강 및 전기강판 생산원료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합금철 중 하나, 일반 FeSi의 경우 제강 및 주물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고순도 FeSi의 경우 불순물 함량이 엄격히 제한된 전기강판에 Si 합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순도 FeSi #2 L-Ca



- 전기강판 Si 첨가용
- 무방향성 전기강판(정밀모터, 원심기기의 철심소재)의 재료
- 주요 고객사: 포스코



고순도 FeSi #2 L-C



- 전기강판 Si 첨가용
-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HYPER NO. 전기차용 구동모터 철심소재)의 재료
- 전기차용 구동모터 철심소재의 원료인 FeSi #2 L-C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진행중
- 주요 고객사: 포스코



고순도 FeSi #2



- 전기강판 Si 첨가용
- 방향성 전기강판(대형, 중 소형 변압 기류)의 재료
- 주요 고객사: 포스코



페로실리콘BU 설비반 이경원 사원

혁신을 통해 최고의 성과로 나아가는 SIMPAC인더스트리의 두 다리

작년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SIMPAC인더스트리를 지지하는 산업기계BU와 페로실리콘BU의 임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혁신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들이 만들어 온, 그리고 만들어 갈 SIMPAC인더스트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자.

< SIMPAC인더스트리

Q. 현장의 분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김형준
아무래도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에 신입사원과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들도 힘과 열정을 되찾죠.

양용진
'작년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자'라는 각오가 가득합니다. 조직이 더욱 알차게 개편된 만큼, 올해는 새로운 성과가 다양하게 창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Q. 일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구나'하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윤철욱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인계받으면서 모든 게 다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배우고 익힐 게 많은데, 이런 점을 보완할 때마다 성장의 기쁨을 맞습니다.

정선희
SIMPAC그룹 인수 전에는 부서 이동이 없어서 정체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여러 부서의 일들을 경험하고 역량을 쌓고 있기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소속 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김건우
최근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조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기존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연결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작년 4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보니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쓰는 게 곧 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통해 일을 익히고 있습니다.

Q. 업무에 임하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김형준
전기로의 전극을 감싸는 케이스를 외부업체에 발주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이 케이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원가 절감에 도움을 주니 무척 기뻛죠.

김건우
앞으로 페로실리콘BU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성공적으로 시험 생산했을 당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양용진
올해 초에 PVC와 관련된 LG 계열사들과 고정적인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실적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니 매우 뿌듯합니다.

Q. 어려운 일이 닦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정선희
회사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대부분 혼자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팀 내 직원들, 그리고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최적의 문제 해결법을 찾아 나갑니다.

윤철욱
'새로운 일에 겁먹지 말고 일단 도전하고 보자'는 생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문제 해결의 훌륭한 실마리로 작용하니까요.

이경원
신입사원은 어려운 부분을 계속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선배들에게 답을 구합니다.

+
Send

< SIMPAC인더스트리

Q. 팀워크를 단단하게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윤철욱
현장에 자주 나와서 직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듣습니다. 그래야 생산팀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양용진
어떤 이야기든 일단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Q. SIMPAC인더스트리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김형준
설비를 인수받은 지 이제 갓 1년을 넘겼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꾸준히 쌓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우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사적으로 새로운 협업 틀을 마련해 주고 계셔서, 현장에서 더욱 힘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Q. 올해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정선희
생산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요소를 찾아내서 회사의 이익 증대에 확실하게 공헌하겠습니다.

김건우
일을 잘하려면 강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올해는 여러 가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이경원
신입사원의 지상과제는 역시 전문성 향상인데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장에 더욱 도움이 되는 직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양용진
각자 맡고 있는 직급과 업무는 다르지만,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개인의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윤철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 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준
요새 여러 가지 일로 모두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 조금만 힘내 주셨으면 합니다!

Q. SIMPAC인더스트리는 ()이다!

김형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새로운 설비를 접하게 됐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며 지내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이경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공장에서 아무나 접하기 힘든 설비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윤철욱
여기에 와서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고, 하루하루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보물들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렇기에 '보물창고'라고 말하겠습니다.

김건우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계속 있다가 작년 4월 가진 첫 직장인데, 그곳이 국내 최초로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기도 하니까요.

양용진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영업은 하면 할수록 새로운 도전 과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쉽죠.

정선희
영업, 구매, 생산, 설계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하나로 합심하고 소통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협업과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Send



열린 소통과 유연한 혁신으로 SIMPAC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SIMPAC 메탈BU 김종호 부사장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합금철 메이커 SIMPAC 메탈BU에 든든한 우군이 안착했다. 오랜 철강업계 경력과 유연한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SIMPAC 가족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SIMPAC 메탈BU 김종호 부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합금철 분야로의 새로운 도전

지난 3월 2일, 김종호 부사장이 SIMPAC 메탈BU에 정식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30년에 가까운 경력을 쌓으며 생산계획, 업무혁신 프로젝트, 원료 구매 및 투자, 해외 법인장, 철강 관련 제품 수출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섭렵한 끝에 SIMPAC 메탈BU를 이끌어 갈 리더 중 한 명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 입사 소감을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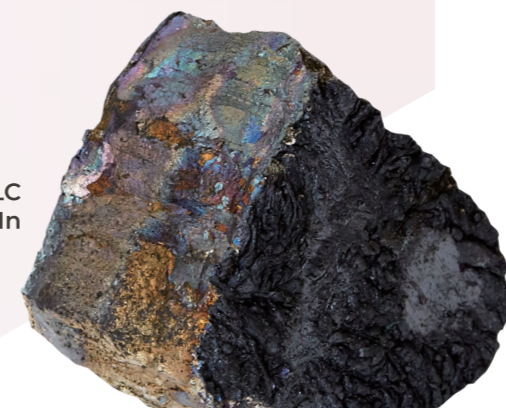


“철강사에서 일하며 국내 합금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SIMPAC 메탈BU의 명성을 종종 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SIMPAC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고, 메탈BU와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최진식 회장님께서 입사 환영 화환을 보내주셨는데, ‘SIMPAC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가족’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며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7년 노하우”

세계적 철강기업에서 생산계획, 업무혁신 프로젝트, 원료 구매·투자, 철강원료 등의 수출입을 맡으며 27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SIMPAC 메탈BU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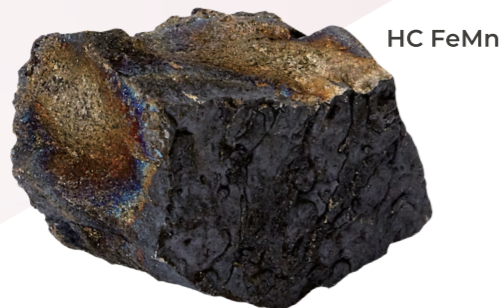
MC/LC FeMn





“호황”

현재 합금철 시장은 오랜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김종호 부사장은 치열한 합금철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 유지하면서 성장을 일궈낼 수 있도록 내적 성장과 더불어 신사업 발굴에 매진한다는 각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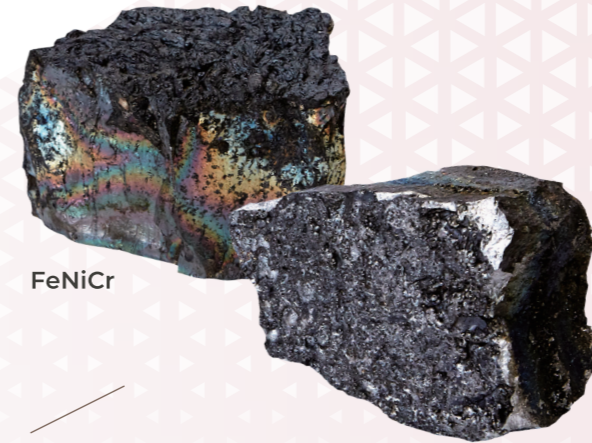


HC FeMn

김종호 부사장은 입사 전부터 SIMPAC그룹 특유의 유연함과 도전정신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중요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임직원 개개인이 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성장을 일궈내는 모습을 목도하며, 새로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았고 더불어 일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그렇기에 SIMPAC 메탈BU에 온 지금, 그는 새로운 도전으로 SIMPAC 가족의 성장과 행복에 즐겁게 기여하려고 한다.



“유연함과 도전정신은 SIMPAC 메탈BU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금세 좌초하기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파도를 유연하게 타고 넘어야 목표 지점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죠. 당진공장과 포항공장에서든 창의적이고 유연한 발상과 다양한 도전정신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실패에 굴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고 격려하시던 회장님의 모습에서 SIMPAC그룹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FeNiCr

SiMn

“행복”

김종호 부사장은 SIMPAC 메탈BU 가족들의 행복을 키워 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도전과 혁신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SIMPAC 가족의 더 큰 행복을 꿈꾸다

김종호 부사장은 직업윤리와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프로(전문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내가 이 회사를 책임지고 성장시킨다’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기본이자 본분이라는 것. 또한 혼자 빨리 달리기보다는 함께 손잡고 멀리 달리는 것이 자신의 업무 철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열린 소통을 중시한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합금철 시장이 매우 좋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경쟁력이 있기에, SIMPAC 메탈BU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는데요. 이러한 건강한 조직문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금철 시장이 호황을 맞았기에, 김종호 부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SIMPAC 메탈BU가 한층 성장하는 데 힘을 쏟으려 한다. 아울러 현재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금철 산업 내의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그의 각오이자 목표다. 지금껏 여러 분야에 걸쳐 도전을 이어온 만큼, 김종호 부사장의 전문성과 도전정신은 SIMPAC 메탈BU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운영회의 시에 직원들에게 소개 인사말에서 ‘SIMPAC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SIMPAC 가족 모두의 성장 발전과 더 큰 행복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SIMPAC그룹과 메탈BU 식구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많은 응원과 격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SIMPAC NEWS

SIMPAC 프레스BU 2021.03.12

한국수출입은행장 (주)SIMPAC 부평 공장 방문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은행장이 (주)SIMPAC 프레스BU 부평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프레스BU 부평 공장 방문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방 산업이 위축돼 SIMPAC이 수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자 정책 자금 5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SIMPAC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 금융을 발판 삼아 신중국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세계 프레스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은행장은 현장 시찰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은 “전방 산업이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려면 해외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은행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과 신산업 진출 등 수출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조속히 수출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약 29조 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18



심팩 전 계열사 '마이크로소프트365'로 업무 환경 구축

지난 1월부터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및 업무 생산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365'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오픈됐다.

MS365 서비스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문서작업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팀즈(Teams)', 각종 자료를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인 '원드라이브(One Drive)', 일정관리

앱인 '투두(To Do)'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가장 큰 변화는 문서 저장 공간과 접근 방식이 달라져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 직후부터 전산팀은 계열사별 서비스 활용 교육을 진행하여 전사의 모든 구성원이 긍정적으로 새로운 업무 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연이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열흘 동안 MS365 기초 교육과 MS365 스마트워크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SIMPAC 메탈BU 2021.03.26

당진공장,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업무 협약식



지난 3월 26일 당진 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당진 내 뿌리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체 9개, 총 9명의 인원이 이번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는 재작년에 진행했던 산학융합원 외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2년 간 총 2억 1천6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해당 인원은 3년 장기 근속시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참여 주체 별 의미와 사업장의 의무, 상세 세부사항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들이었으며 코로나 관계상 각 회사 담당자 외 임원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2021.03.17

포항·당진공장, 지역내 취약계층 위해 KF94 마스크 30,600장 기부

지난 3월 SIMPAC 메탈BU 포항·당진공장에서는 지역사회 공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F94 마스크 30,600장을 기부하였다.

사내 봉사 동호회인 '심봉사' (심팩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포항시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 지역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방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마스크 12,000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장인 권오성 센터장은 '마스크 가격과 수급이 다소 안정이 되었지만 지역내 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장의 마스크 가격이 부담되어 며칠씩 착용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잊지 않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포항·당진공장이 위치한 지역 8개 마을에 18,600장의 마스크를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리스텍비즈 2021.01.20

리스텍비즈, 10년 장기 근속자 포상



(주)리스텍비즈는 2021년 1월 20일 10년 장기 근속자 직원 포상 시상식을 실시했다. 장기 근속자는 생산팀 김관빈 팀장, 영업팀 현지만 팀장 그리고 생산지원팀 장진울

과장이 장기 근속자 수상을 했다. 수상자에게는 준비한 상패와 소정의 감사금을 지급하였다. “수상자 세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리스텍비즈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2021.02.03

페로실리콘BU, 첫 유도용해로 화입 및 출선식

지난 2월 3일 (주)SIMPAC인더스트리 고순도 FeSi 공장에서 유도용해로 첫 화입 및 출선식이 있었다. 구동모터용 고급 전기강판용 원료인 저탄소 페로실리콘(FeSi #2 L-C) 생산을 위하여 신설한 유도용해로의 첫 출선식에 최진식 회장 외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현재 저탄소 페로실리콘 합금철은 국내 생산기술의 부재로 전량 수입하는 제품으로 고순도 FeSi 공장에서는 이번 유도용해로 신설과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으로 저탄소 페로실리콘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SIMPAC INDUSTRY FERROSILICON BU

최저 수준의 전력 투입량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전기로
전극 및 온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응집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전기로의 전력 투입량을 최저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새로움 위에 놀라운 성과를 꽃피우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2020년은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우리 임직원들의 힘만으로 운영한 첫 해이자, 앞으로의 생산 기반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다져야 하는 시기였던 것. 새로움을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 덕분에,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남다른 성과를 꽃피울 수 있었다.



생산팀 최태인 선임



생산팀 유대우 반장

성공적으로 뎀 도전의 첫걸음

2019년 11월,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이 SIMPAC그룹의 가족으로 거듭났다.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메탈BU 포함 1공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임직원들이 SIMPAC 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로 적을 옮겼다. 생산팀 유대우 반장과 최태인 선임도 포함1공장에서 각각 14년, 8년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대우 반장이 공장 인수 전후의 상황을 회상하며 입술을 뺐다.

“정식 인수 한 달여 전부터 이곳에 와서 인수인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설비 이론 교육을 착실하게 이수하는 한편, 포스코엔텍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머물며 실무를 익혔는데요. 근무 시간에 따라 여러 사람들에게 현장 업무를 배우다 보니 다소 어렵고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포함1공장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새로운 설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덕분에 11월에 무사히 공장을 인수받을 수 있었죠.”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생산 현장은 4조 3교대로 24시간 돌아간다. 한 조 정원이 5명이니, 총 20명이 필요하다. 포함1공장에서 베테랑 임직원 8명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섰음에도 12명이 부족한 상황.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능력 있는 신입사원을 선발했고, 기존 임직원들이 근무와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다. 최태인 선임이 “시간이 어떻게 갖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낸 시기였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신입사원들과 함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쳤지만, 아무래도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두 달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갔는데요. 근무와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비 운영 프로세스와 후배들의 업무 역량이 점점 더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커다란 보람도 함께 느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의식으로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다

인수 후 6개월여 만에 안정화 수순에 접어든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곧이어 성장을 향한 준비에 돌입했다. 첫 번째 과제는 '생산 효율성 끌어올리기'였다. 포스코엠텍으로부터 생산 과정을 인수인계 받았지만, 우리 임직원들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전기로의 전극과 온도를 철저히 관리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응집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 전보다 전력 투입량을 줄일 수 있었으며, 그만큼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니, 바로 '리멜팅(Remelting)'이다. 순도와 온도를 한층 끌어올린 고순도 페로실리콘 용탕에 함량이 다소 미달된 페로실리콘을 녹임으로써 생산량을 높이는 공법이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임직원들은 수많은 실험으로 제품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투입 조건을 매뉴얼화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리멜팅은 포스코엠텍 시절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공법입니다. 아마도 용탕의 상황에 따른 페로실리콘 투입량을 정립하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면 리멜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마자 이 과제에 도전했고, 성공을 거뒀죠. 이렇듯 매사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는 열정과 도전정신이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우 반장의 말마따나,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임직원들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남다르다. 이는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한 최태인 선임의 답변에서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리멜팅 (Remelting)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인수 6개월 만에 리멜팅 공정을
상용화함으로써 생산량을 모두
끌어올리고 있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의 철심 소재인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시험 생산에
성공,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 평소보다
7톤 정도 더 많은 일일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고생이
싹 싹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산팀 단체 대화방에 매일 하루 생산량이 올라오는데요. 공장을 인수받은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 평소보다 7톤 정도 더 많은 일일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지난 고생이 싹 싹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웃음)"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평생 동반자'

인수 2년차를 맞았지만,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친다. 출탕 작업 시 용탕을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해 응집물을 부지런히 제거하고, 산소를 투입해 출탕 경로를 원활하게 뚫어준다. 우리 임직원들이 공장을 맡기 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업무 모습이다. 회사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기에,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문제없이 순항 중이다.

"작업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안전'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할 수 없을뿐더러, 안전사고가 한 건 일어나게 되면 공장도, 해당 임직원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투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매사 업무에 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공장의 면모를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또 한 번의 혁신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탄소 함량을 한층 낮춰서 부가가치를 높인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의 시험 생산에 들어간 것. 이 제품은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의 철심 소재이기에 사업성이 우수하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이 같은 제품 다각화와 함께 생산 설비의 사전 예방점검에도 적극 신경 쓰며 공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청사진을 그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대우 반장과 최태인 선임이 마지막으로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당찬 목소리로 밝혔다.

"저희는 이곳을 단순한 일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회사와 구성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렇기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공장을 '평생 동반자'로 생각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상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업무 혁신의 밑바탕’을 혁신하다



지난 1월, 전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365’ 서비스가 첫 선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솔루션으로, SIMPAC그룹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공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업무 혁신의 밑바탕을 혁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66

MS365

이번 MS365 도입은 SIMPAC그룹 정보 체계 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업, 업무 솔루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추적·분류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된 시스템은 앞으로 유기적으로 고안되고 실행되면 실무자들에게 유연하고 민첩한 업무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SIMPAC홀딩스 최민찬 상무 **99**



SIMPAC그룹에 깃든 스마트 업무 환경

업무 생산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이다. 이에 따라 앞서가는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업무 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며, 각종 기능의 연동성을 강화한 ‘4차 산업혁명형 업무 솔루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금껏 ERP와 그룹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임직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SIMPAC그룹도 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솔루션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월 18일, ‘마이크로소프트365(이하 MS365)’ 서비스가 전 계열사에 걸쳐 전격적으로 오픈됐다. MS365 도입을 주도한 SIMPAC홀딩스 최민찬 상무가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의 글로벌 IT기업에서 근무할 때 전사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보의 공유와 순환, 적절한 분류가 회사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죠. 이번 MS365 도입은 SIMPAC그룹 정보체계 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보다 원활한 정보 공유 및 협업 솔루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추적·분류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MS365 서비스는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으로 임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는 ‘팀즈(Teams)’, 각종 자료를 저장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원드라이브(One Drive)’, 일정 관리 앱인 ‘투두(To Do)’ 등 업무 및 협업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가장 큰 특징은 MS365의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는 것. 예컨대 원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자료를 팀즈로 공유할 수 있고, 팀즈에서 결정된 일정이 투두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MS365로 발현된 SIMPAC의 혁신성

SIMPAC그룹은 작년 8월, MS365 도입의 첫 발을 뒀다. 선진적인 IT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Untact)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곧이어 SIMPAC 경영지원1팀 IT파트에서 각종 업무 솔루션의 비교 분석에 돌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연동성과 솔루션 안정성 등을 두루 고려해 MS36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IT파트 현창우 매니저가 지난 몇 달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서비스 오픈 직전까지는 MS365를 SIMPAC그룹의 업무 특성에 맞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오픈 직후부터는 임직원 분들이 거부감 없이 MS365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열사별 서비스 활용 교육을 진행했고, 교육 말미에 쏟아진 질문들을 모두 정리해 공지하며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죠. 수시로 들어오는 문의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전사의 모든 구성원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업무 툴(Tool)에 적응하기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MS365가 한층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MS365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IT파트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 활용 사례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SIMPAC 프레스BU 생산팀은 현장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MS365에 공유된 각종 업무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MS365의 메일 서비스인 '아웃룩(Outlook)'의 '플래그 기능'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중요 메일에 플래그 기능을 활성화하면 추후 지정된 시간에 메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람을 보내준다. 뿐만 아니라 일정 관련 내용을 투두에 업로드할 수 있고, 이 내용을 프로젝트 관리 툴인 '플래너(Planner)' 및 팀즈와 연동해 다른 임직원들과 빠르게 공유할 수도 있다.

"서비스 활용 교육 때 'MS365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스스로 나서서 활용할 정도로 업무 혁신에 적극적이신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역시 SIMPAC 가족들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임직원 분들의 혁신성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활용성 증대 및 각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모두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으다

임직원들은 MS365가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오피스 프로그램, 신규 메일 서비스인 아웃룩, 협업 커뮤니케이션 앱인 팀즈 등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MS365 도입 후의 긍정적인 변화로는 빠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공동 작업 등 협업 강화, 업무 지속성 및 연속성 확보 등을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직원들이 다양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IT파트는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IT파트 송준혁 매니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보안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월 중 이를 위한 EMS(Enterprise Mobility Security) 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죠. 아울러 MS365와의 연동성을 강화할 신규 그룹웨어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계열사별 ERP를 새롭고 유용한 기능이 다수 포함된 차세대 ERP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혁신에는 진입장벽이 따르지만, 한 번 적응하고 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유용함을 맛본 사람이 예전의 폴더폰을 꿈도 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최민찬 상무와 IT파트는 MS365와 앞으로의 업무 솔루션 혁신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렵게 일하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MS365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혁신 노력을 기꺼이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적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 빨리 모든 구성원이 MS365의 편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날이 올 때까지 임직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T파트로 연락주세요. '5분 대기조'처럼 바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니인터뷰

IT파트 현창우 매니저
누구든 변화를 앞두면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이런 측면에서 MS365를 사용하신다면, 더 좋은 활용법이 마구 쏟아져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IT파트 송준혁 매니저
MS365를 처음 접한 임직원 분들은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거예요. '굳이 이걸 써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한 번 익숙해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실 겁니다. 저희를 믿고, 손에 익을 때까지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용감무쌍한 개척자들

용감하고 다각적인 영업으로 회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는 개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으로의 혁신적 영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유용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작년의 어려운 상황을 끝내 이겨 내고 새로운 목표 앞에 선 네 임직원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좌로부터)
▷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여준혁 매니저
해외영업팀 이지호 매니저
▷ SIMPAC 메탈BU 합금철영업팀 박춘길 대리
ROLL영업팀 심성보 과장

Q.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심성보 과장 초유의 상황 때문에 제가 주로 담당하는 제지업체들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로 인한 타격이 상당했는데요. 반면 비대면 서비스가 폭증하면서 택배상자용 종이나 포장용지의 생산량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를 기회 삼아 업계 침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고객 응대로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힘을 기울인 한 해였죠.

여준혁 매니저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상반기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때의 공백을 활용해 하반기의 영업 전략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고요. 하반기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고객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영업한 끝에 연초에 세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호 매니저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북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공장의 투자 계획이 지연 또는 무산돼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물류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로 향한 사람들이 격리 기간을 거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부합니다.

박춘길 대리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컨퍼런스 참여 등 영업활동 경로가 갑자기 막혀 어려움이 많았고요. 작년 추석 이후 해상 운임이 폭등하는 등 손실 요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수출에 차질을 빚는 동종업계의 고객사를 유치하는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Q. 영업활동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심성보 과장 최근의 시장 추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지업체의 트렌드가 비대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한 뒤 급부상한 택배상자 용지 및 포장용지 제조업체 영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여준혁 매니저 저는 매사 유연한 사고를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사 중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인 기업과 5억 원인 기업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프로젝트에 앞서 각 업체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영업 전략을 각기 다르게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특정 기업을 기준으로 삼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지호 매니저 저는 고객사에 대한 영업활동 못지않게 사내 임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내부 영업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유관부서에 잘 전달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를 파악한 뒤 고객사와 협상해야 비로소 수주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이 자리를 빌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힘써 주시는 타 부서 임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길 대리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메일로 협상 내용을 주고받을 때와 직접 통화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사의 의중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들도 취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신뢰도 두터워집니다.



SIMPAC METAL BU

메탈BU 합금철영업팀 박춘길 대리



SIMPAC METAL BU

메탈BU ROLL영업팀 심성보 과장

Q. 최고의 영업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심성보 과장 고객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사려면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하고 틈틈이 찾아가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죠. 그렇기에 저는 담당자들과 업계의 시황과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갈 때마다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 주니 자연스럽게 저와의 만남을 반기게 되고, 이는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되죠.

여준혁 매니저 저는 소성가공 트렌드 연구를 통해 고객사를 설득합니다. 예컨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미리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작년에 수소자동차와 관련된 수주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성실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지호 매니저 우리 회사 제품의 우수성이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무척 중요하데, 그 밑바탕이 되는 글로벌 웹사이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우리 회사와 제품의 높은 경쟁력을 심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공들여서 개발 중입니다.

박춘길 대리 저희는 시황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황에 따라 영업 전략과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데요. 합금철이 남아도는 매수자 우위 상황에서는 수출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합금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시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IMPAC PRESS BU

프레스BU 해외영업팀 이지호 매니저



SIMPAC PRESS BU

프레스BU 국내영업팀 여준혁 매니저

모두가 우리의 고객

진정한 영업맨은 고객사에 대한 외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힘을 모을 수 있는 내부 영업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Q. 2021년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심성보 과장 국내 제지·제철업계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돼 있습니다. 특히 제지업계의 경우 폐업하는 업체도 있을 만큼 상황이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경쟁사를 물리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장에서의 생존과 수익성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여준혁 매니저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 짓는 것이 1차 목표고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탄탄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현실에서 활발하게 영업 활동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와 통찰력도 놓치지 않은 영업맨이 되겠습니다.

이지호 매니저 작년의 힘들었던 상황을 딛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관부서와의 내부 영업을 통해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미래 지향적인 영업활동으로 우리 회사 프레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서 'K-프레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퍼트리겠습니다.

박춘길 대리 최근 2년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럽 쪽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수출 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국내 영업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외를 아우르는 전천후 영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반 성장의 파트너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사와 우리 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갑니다.



나에게 영업을이란?

MINI INTERVIEW



'결혼'



영업은 '결혼' 같아요. 최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잘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요. 결혼의 이런 점이 영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SIMPAC 메탈BU ROLL영업팀 심성보 과장

'결핍'



결핍은 영업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예요. 부족한 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더욱 치밀한 영업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죠. 그렇기에 저에게 영업은 '결핍'입니다.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여준혁 매니저

'간절함'



프로젝트 한 건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힘든 수주 과정을 이겨 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죠. 저에게 영업을 '간절함'인 이유입니다.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이지호 매니저

'거름'



저는 영업을 '거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업활동을 제대로 해내려면 외국어 공부, 글로벌 현안 및 시장 분석,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기계발이 저의 업무 능력을 성장시키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SIMPAC 메탈BU 합금철영업팀 박춘길 대리

어렵지 않은 창의적 일상 만들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곧 혁신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업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창의력에 주목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꿨듯, 창의적 아이디어로 의미 있는 새로움을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creativity

일상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압도되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네 가지 덕목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셸리 카슨 교수는 "창의력의 밑바탕은 '흡수'라고 강조했는데, 뭔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갖는 자세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탐험'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사례를 열심히 찾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대화'입니다. 문제에 대해 스스로 열심히 대화하다 보면 새로운 해결책을 떠올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혁신적 기업들이 자유로운 토론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이유죠. 마지막 덕목은 '실행'입니다.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실행하다 보면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이는 곧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창의적 일상을 만드는 습관 형성법

- 1 자신의 생활 패턴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창의력이 충만해지는 시간대를 찾으세요.
- 2 특정 도구, 상황, 배경음악을 활용해 자신에게 창의적 시간대가 찾아왔음을 알려주세요.
- 3 '하루의 할 일'에 제한을 두세요. 일이 너무 많으면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 4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고 엄격하게 지키세요. 창의적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 5 도저히 집중할 수 없을 때는 과감히 일을 손에 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BOOK 추천 도서



직장인 컴피던시
유재천 지음, 스토어하우스
직장생활에 있어
창의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전하는 책



루틴의 힘
댄 에리얼리 외 17명 지음, 부키
창의력 향상의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는
'루틴(Routine)'에 대해
소개한 자기계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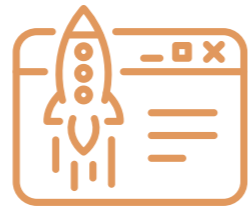
humanities

인문학은 창의력의 왕도

창의력은 발휘하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등장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운동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며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듯, 우리도 성실하게 창의력의 밑바탕을 깔고 닦아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생물학 교수이자 풀러치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에드워드 윌슨은 '인문학'을 창의력의 원천이라 말합니다. 인문학은 쉽게 말해 '인간을 해석하는 학문'인데요. 윌슨 교수는 "인문학처럼 무언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인간을 '동물'에서 해방시켰다"며, 동물과 달리 당면한 문제를 새롭게 해석했기에 인류는 지금껏 창의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듯 인문학과 창의력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수록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인문학을 가까이하는 게 좋습니다. 인문학 서적을 탐독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강연·교양 프로그램·다큐멘터리 등 양질의 인문학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삶에 인문학을 끌어들이는 법

- 1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세요.
- 2 어려운 책 대신 가볍고 재미있는 인문학 해설서를 먼저 읽으세요.
- 3 일부러 시간 내지 말고 출퇴근길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인문학과 가까워지세요.
- 4 색다른 인문학 영상이 가득한 유튜브도 잘 활용하세요.
- 5 책을 읽으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세요.



BOOK 추천 도서



퇴근길 인문학 수업
백상경제연구원 지음, 한빛비즈
매일 30분씩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이 가득한 책 시리즈



창의성의 기원
에드워드 윌슨 지음, 사이언스북스
인문학과 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창의력의
기원과 실체



relaxation

휴식으로 끌어올리는 창의력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자고 일어나니 마법처럼 해결책이 떠오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휴식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세계적인 위인들은 대부분 산책을 즐겼습니다. 당면한 일에만 몰입하는 대신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한 건데요. 실제로 걷기는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이 대학 졸업생 176명을 대상으로 앉아있을 때와 걷고 있을 때의 창의력을 측정했더니, 걷고 있을 때의 창의력이 60%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명상이나 낮잠도 창의력 발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음주가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잘 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꼭 실 수 있는 방법

- 1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 2 평상시 되도록 많이 걷고 산책하세요.
- 3 점심시간을 활용해 10분 정도 눈을 붙이세요.
- 4 틈틈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 5 자기 전 명상으로 바빴던 하루와 마음을 정리하세요.



BOOK 추천 도서



최고의 휴식
구가야 아키라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배우는 피로의 원인과
효과적인 휴식법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앤디 퍼디컴 지음, 스노우폭스북스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으로 심신을 챙기는
법을 알려주는 책



THE ERA OF CHANGE AND INNOVATION

변화와 혁신의 시대, 새롭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식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국내외 정세와 코로나19로 모두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하는 방식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SIMPAC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해 움직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언택트 트렌드 등으로 기업의 운영방식과 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원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빠른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지시나 강요가 아닌 모두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SIMPAC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변화와 혁신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번 설문 중, '나는 업무 수행 중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를 묻는 질문에서 SIMPAC인 46%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에서 SIMPAC인 64%가 '보통이다,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대다수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전과 열정으로 성과를 향해 달려가다

거대하고 치열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SIMPAC만의 특화된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남다른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을 이뤄내고 조직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직의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IMPAC인들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나는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해 적극적이며,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높다.'에서 '그렇다'가 48%, '우리 조직은 경쟁적인 활동과 업적, 목표를 정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강조한다.'에서 '그렇다'가 46%였다. SIMPAC의 각 개인과 조직이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변화라는 문 앞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은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스스로 테두리를 만들고 익숙한 방식대로 돌아가려는 관성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은 이 물음표로부터 시작한다. 당연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물음이 조직의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변화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자. 변화라는 문을 열고 도전과 혁신, 창의력과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SIMPAC인이 되길 기대해본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SIMPAC人들은 SIMPAC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간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진행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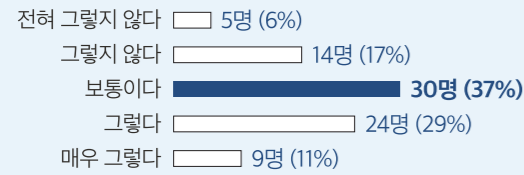
기간 : 2021.03.10~2021.03.24

참여 : SIMPAC홀딩스, SIMPAC, SIMPAC인더스트리, 리스텍비즈 등
SIMPAC그룹 전 계열사 참여 (총 83명 설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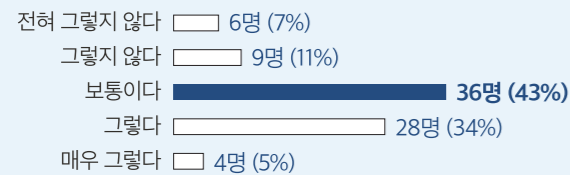
귀하가 생각하는 변화와 혁신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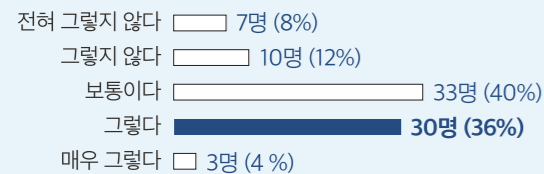
01 우리 조직은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신뢰, 개방성, 참여를 중시한다.



02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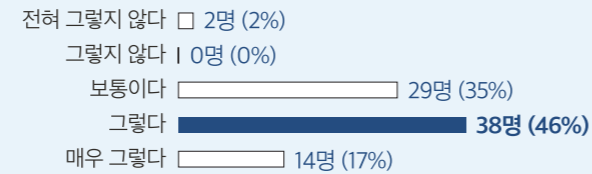


03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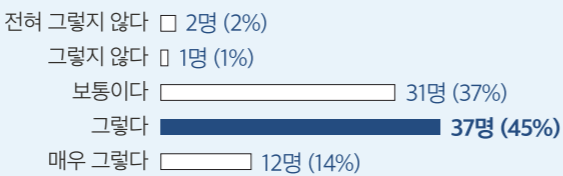
04 나는 업무 수행 중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나는 업무 수행 중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0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노력하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에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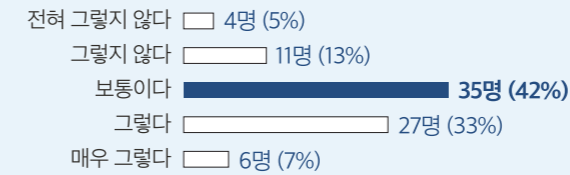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노력하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에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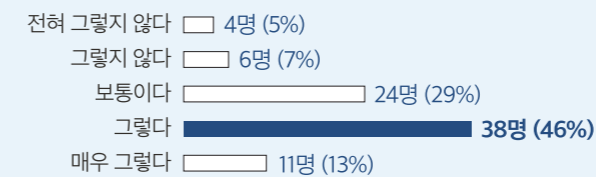
귀하가 생각하는 조직목표와 직무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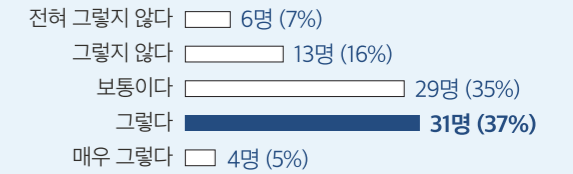
06 성취와 목표달성에 대한 강조가 우리 조직을 한데 묶는 응집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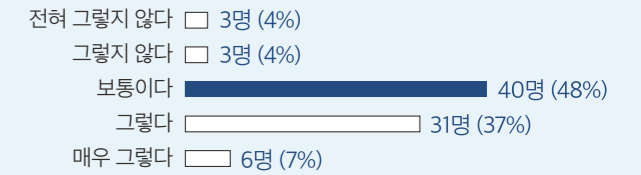
07 우리 조직은 경쟁적인 활동과 업적, 목표를 정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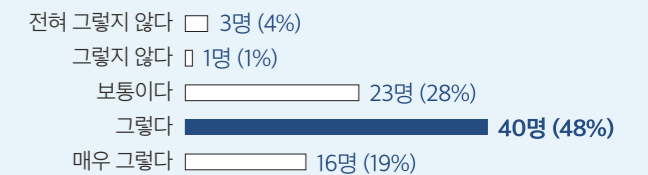
08 우리 조직의 리더십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공을 평가하고 신뢰, 개방성, 참여를 중시한다.



09 나는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높다.



10 나는 조직 목표달성에 대해 적극적이며,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높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11 개인과 조직의 직무성과와 혁신행동에 대한 심팩인들의 의견



문제만 집중하기보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성취감과 애사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항상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이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아가야겠습니다.

현재의 변화라는것은
생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현 시대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관성을
깨려는 노력과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HANGE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
조직안에서의 명확한 목표 제시를
통한 성과 달성이 필요하며,
일대일 코칭을 통한 심팩만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인재육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나 행동방식을
검토하여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격려와 질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무교육의 필요성과
자기 계발이 필요하며 실행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선배들이 업무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INNOVATION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변화'를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변화스타그램

이 코너는 임직원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SIMPAC-STARGRAM



SIMPAC 페로실리콘BU 경영지원팀
고현정 사원

우리 공장에도 봄이 왔네

#변화 #봄 #벚꽃 #팝콘활짝 #이쁘다 #FeSi공장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김동호 매니저

모니터 받침을 바꾸면서 자리가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업무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사무실 #깔끔한 책상 #집중도 향상 #변화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남민국 매니저

올해 사원에서 매니저로 변화하면서 사원 때 사소한 실수가 많던 저에서 성장하고 싶은 맘으로 레몬향 방향제를 샀습니다. 레몬향 방향제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싶어요.

#사무실 #레몬향 #집중도 향상

SIMPAC홀딩스 경영지원팀
이도영 사원

쉬는날 콧바람

#김포 #장릉 #chillax #봄바람 #날씨의변화



우리들이야기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2021.3.20
리스텍비즈 고요한 주임



평생 함께 할 신부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보살피고 아끼면서 결혼 전처럼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1.3.20

SIMPAC 메탈BU 당진 김상준 사원



서로가 마주 보며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일을 축하합니다

2021.3.2
SIMPAC 프레스BU 고객지원팀 김도영 매니저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되었어요. 예준이의 모든 날을 응원해주세요~

2021.2.23

SIMPAC 메탈BU 당진 조현희 사원



우찬아.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p>SIMPAC 홀딩스</p> <p>SIMPAC그룹 지주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p>SIMPAC 프레스BU</p> <p>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 	<p>SIMPAC 메탈BU</p> <p>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망간 및 실리코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p>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p> <p>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p>SIMPAC 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p> <p>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p>리스텍비즈</p> <p>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